일반사회 통계

우리국민, 북한에 “관심없다” 61%

60~70년대 학교 다닌 사람이라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을 자주 불렀다. 학교에서나 대중 매체를 통해서 은연 중에 김일성은 머리에 뿔 달린 괴물이라는 인식을 주입받았다. 북한괴뢰정권을 무찔러 괴물화된 김일성으로부터 북한 동포를 구해내자는 사명감에 넘쳤다. 남북의 평화공존을 선언한 7 • 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여전했고 군사정권이 지속된 1980대도 이러한 분위기는 가시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남한이 북한보다 확실한 체제 우위를 점하면서, 북한을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 교육을 받지 않은 세대가 성장하고, 사회적 상황이 바뀌면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는 것(25%)보다는 평화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57%)을 국민들이 선호하고,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기 보다 각기 주권을 갖고 자유로운 왕래와 교역을 하는 연합제 통일 형식에 대한 선호도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 국민의 61%가 북한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20대 젊은층들은 북한에 대해 4명 중 3명(74%)이 아예 관심없다는 생각을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스〉 117호에서는 통일 및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 인식을 통해 선교의 대상지로 북한을 바라보는 교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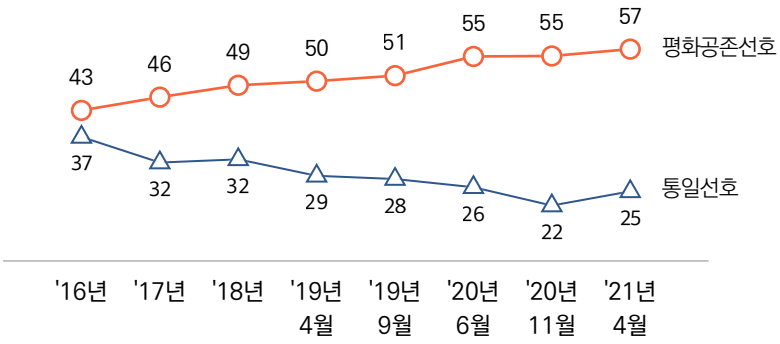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국민, ‘통일보다 평화공존을 더 원해’ 57%!

- 국민들은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는 것(25%)보다는 평화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57%)을 더 선호한다. 이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이미 상당 기간 동안에 진행되던 현상이다.
- 심지어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 사이에 훈훈한 분위기가 최고조에 올랐던 2018년 조차 하락 추세가 주춤했을 뿐 하락세를 막을 순 없을 정도였다.

[그림] 통일 선호 VS 평화공존 선호(5점 척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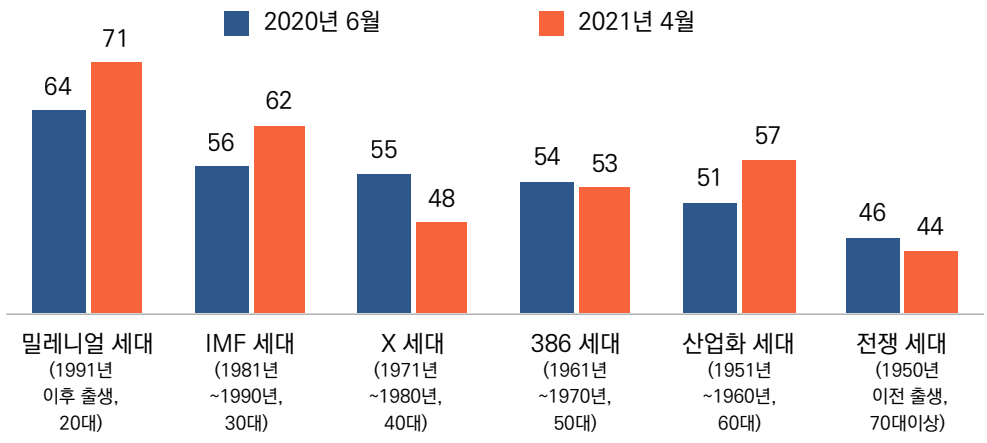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21’, 2021.7.16.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면면접조사, 2021.4.26.~5.18)
** Note : ‘남북한이 전쟁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없다’는 질문에 동의하면 (매우+다소) ‘평화공존 선호’, 동의하지 않으면(매우+다소) ‘통일 선호’로 분류함

● 20대 젊은층, ‘평화공존’선호 71%!

- 평화공존을 가장 선호한 세대는 20대(밀레니얼 세대)인데 이들은 다른 세대와 큰 차이로 평화공존을 선호했다. 그 다음으로 30대(IMF세대)도 평화공존을 선호했다.
- 이 두 세대 모두 평화공존을 선호하는 비율이 2020년 6월보다 많이 올랐다. 북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평화공존의 대상으로 보는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평화공존 선호 응답률 추이(세대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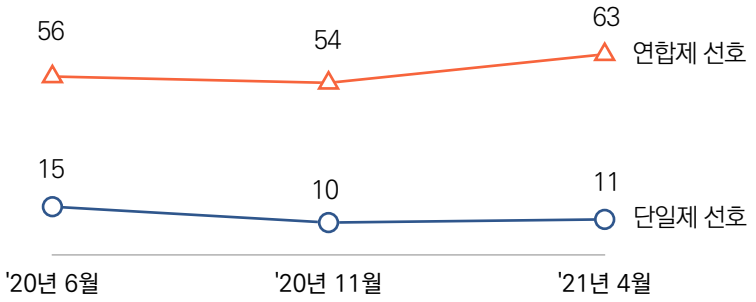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21’, 2021.7.16.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면면접조사, 2021.4.26.~5.18)

● 우리국민, 각기 주권을 갖고 자유왕래하는 '연합제 통일' 선호 63%!

- 통일에는 두 국가가 한 국가로 되는 통일(단일제)과 각기 주권을 갖되 자유로운 왕래와 교역을 하는 관계의 통일, 즉 유럽연합과 같은 체제가 되는 통일(연합제)이 있다.
- 우리 국민은 연합제 통일을 더 선호하는데 그 경향은 점점 더 커지는 추세이다.

[그림] 단일제 VS 연합제 선호도 추이(5점 척도/매우+다소 동의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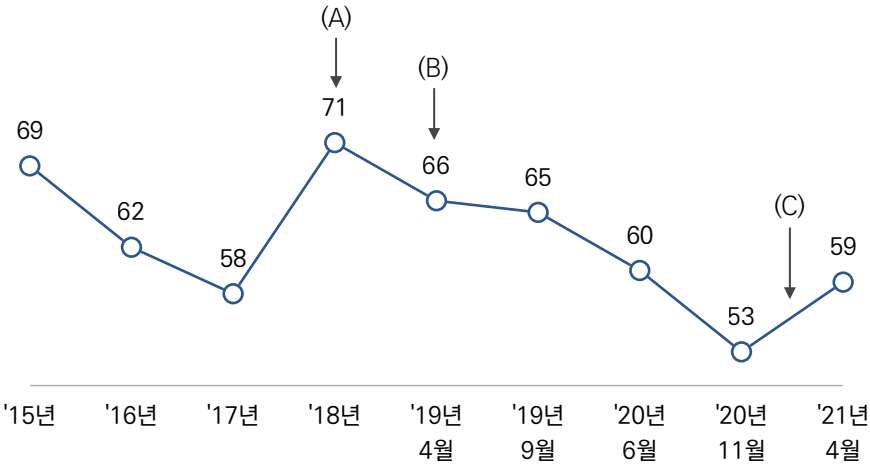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21', 2021.7.16.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면면접조사, 2021.4.26.~5.18)
**Note :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국민이 서로 왕래할 수 있고 정치 경제적으로 협력한다면 그것도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에 동의하면 '연합제 선호', 동의하지 않으면 '단일제 선호'로 분류함.

● 통일 필요성, 하락 추세에서 미국 바이든 취임 후 상승!

-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남북 관계 및 주변 강대국와의 관계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이다. 계속 떨어지던 통일 필요성 응답률이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반전을 이루어 71%라는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한 이후 계속 하락을 거듭했다.
- 그러다 2021년 4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59%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20년 11월보다 6%P 오른 결과였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 관계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통일 필요성 : 필요하다 응답률 /4점 척도(매우+약간) (%)



(A) 3차례 남북 정상회담
(B)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2월)
(C) 바이든 미대통령 취임(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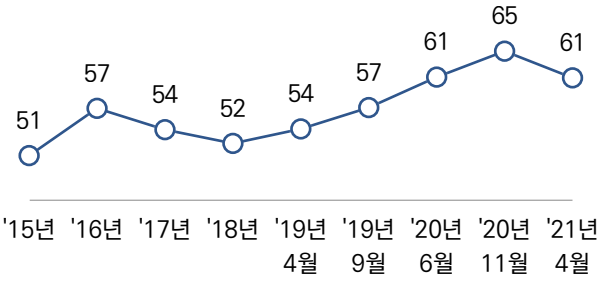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21', 2021.7.16.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면면접조사, 2021.4.26.~5.18)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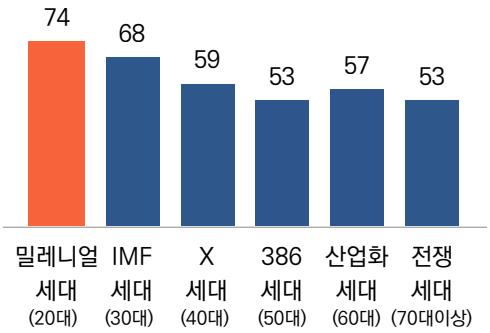
우리국민, ‘북한에 관심없다’ 61%

- 분단된 민족이므로 북한에 관심있을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우리국민은 북한 문제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편이다.
- 남북관계가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던 2017년에도 북한 문제에 ‘관심없다'는 응답이 54%였고, 이후 남북관계가 호전되었던 2018년에도 여전히 52%는 무관심하다고 답변할 정도이다.
- 연령별로 ‘관심없다’ 비율을 보면 20~30대 젊은층에서 급격히 높아지는데 20대층은 무려 74%가 북한에 대해 관심없는 것으로 응답했다.

[그림] 북한에 대한 무관심도
(4점 척도/전혀+별로 관심없다)



[그림] 연령별 ‘관심없다’ (전혀+별로)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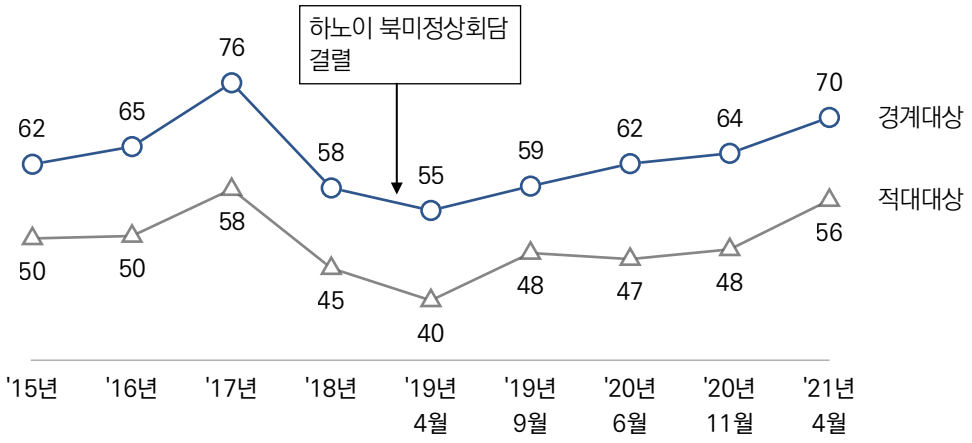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21’, 2021.7.16.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면면접조사, 2021.4.26.~5.18)

●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상승 중!

- 국민들은 북한을 경계 대상 혹은 적대 대상으로 보는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2019년 2월) 이후 이러한 인식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북한 이미지(11점 척도/6~10점, ‘동의한다’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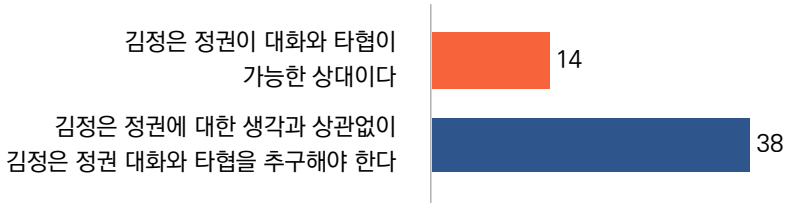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21’, 2021.7.16.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면면접조사, 2021.4.26.~5.18)
**〈11점 척도 질문〉 0점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점 : 중간, 10점 : 매우 동의한다

● 우리국민, '김정은 정권 신뢰도' 14%로 매우 낮아!

- 국민들에게 현재 김정은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했는데 14%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 이러한 낮은 신뢰와 관계없이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는 응답은 김정은 신뢰도의 세 배 가까운 38%이다.
- 이 결과는 남북 평화 유지에 대한 높은 열망을 반영한다.

[그림] 북한 이미지(5점 척도, '매우+다소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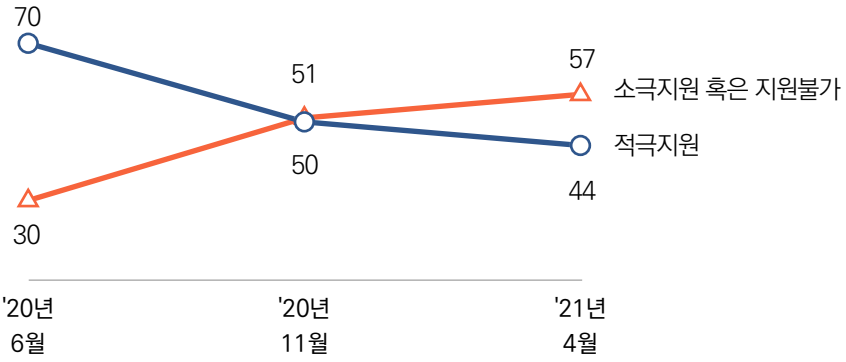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21', 2021.7.16.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면면접조사, 2021.4.26.~5.18)

●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남한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 1년 사이 크게 하락!

-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44%로 소극 지원 혹은 지원 불가(57%)보다 낮았다.
- 북한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그동안 수차례 한국정부의 지원 방침 발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적극 지원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지난 1년간 추이를 보면, '적극지원' 의견이 급격히 하락하고, '소극지원 혹은 지원 불가' 의견이 크게 상승했다.

[그림] 북한 코로나19 지원에 대한 의견(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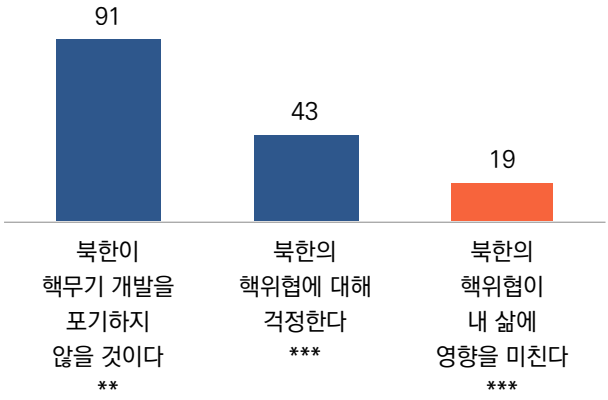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21', 2021.7.16.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면면접조사, 2021.4.26.~5.18)
**설문보기 : 1=북한의 요청이 없더라도 한국이 먼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2=북한이 먼저 요청을 한다면 지원해야 한다, 3=북한이 먼저 요청 하더라도 비 핵화나 경제협력 등의 약속을 받은 다음 지원해야 한다, 4=북한이 요청 하더라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
(1+2 : 적극지원, 3+4 : 소극지원 혹은 지원 불가)

3

북핵을 걱정하지만,
내 삶에 영향은 없을 것이다!

- 거의 모든 국민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91%)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에 대해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43%). 더욱이 북한의 핵위협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이다(19%).
- 남북관계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무력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그림] 북핵에 대한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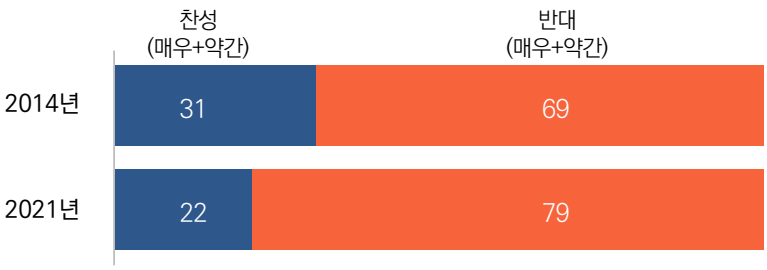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21', 2021.7.16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면면접조사, 2021.4.26.~5.18)
**3점 척도 질문 : '1.조만간 핵 포기 2.장기적으로 핵 포기 3.핵 포기하지 않을 것' 중에서 3번 응답률
***5점 척도 질문 : (매우 + 다소) 걱정한다/영향을 미친다 비율

4

우리국민의 대부분(79%)
대북지원 반대해!

-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대북 지원은 계속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79%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찬성하는 비율 22%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
- 2014년에의 찬성 비율 31%, 반대 69%와 비교하면 찬성은 줄고 반대는 10%P 늘어났다.
- 이러한 결과는 북핵 문제 해결없이는 대북 지원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대북지원 계속해야 한다" 찬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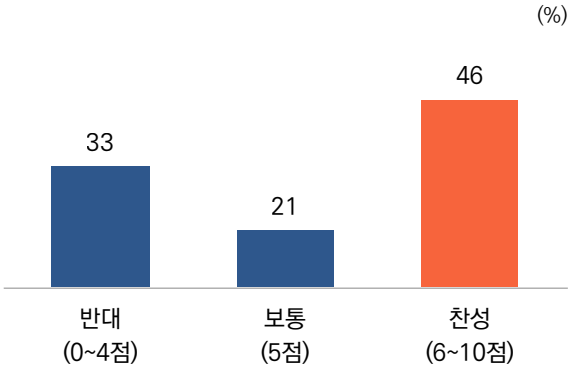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21', 2021.7.16.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면면접조사, 2021.4.26.~5.18)

● 금강산 관광 재개, 찬성 46% → 반대 33%

-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 '찬성' 46%, '반대' 33%로 찬성이 반대보다 많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그림] 금강산 관광 재개 (11점 척도, 0점: 매우 반대한다, 5점: 보통, 10점: 매우 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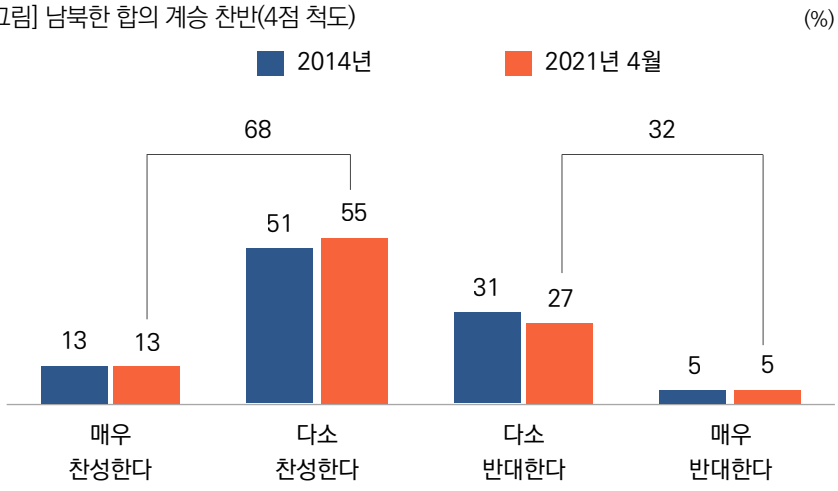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21', 2021.7.16.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면면접조사, 2021.4.26.~5.18)

5

남북한 합의는 계승되어야 한다.
찬성 68% → 반대 32%

- 남북한이 체결한 합의 사항은 정부의 교체와 무관하에 계승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68%가 동의했다. 2014년 조사 결과(64%)와 비교해도 별 변화가 없었다.
- 이러한 조사결과는 남북 합의 사항은 존중되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 또한 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한반도 평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데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남북한 합의 계승 찬반(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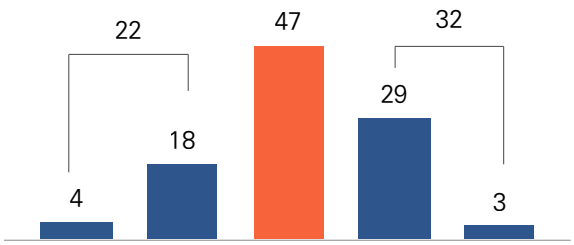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21', 2021.7.16.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면면접조사, 2021.4.26.~5.1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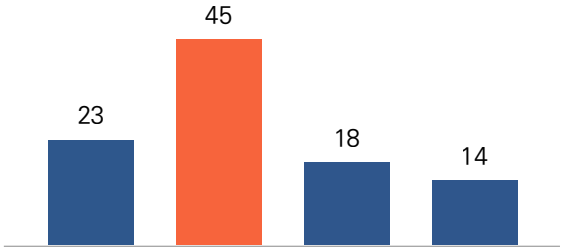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해 **우리국민, 유보적 입장!**

-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남북 관계 개선에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했을 때,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47%)가 유보적 입장을 표했다, 즉 판단을 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 대북제재를 북핵때문에 해야 하지만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딜레마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이런 유보적인 태도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제재에 대한 의견에도 그대로 전이되어서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 45%가 동의했다. 즉 경제제재 수준을 높이지도, 낮추지도 말고 유지하는 입장이 가장 높았다.

[그림] '미국의 대북제재가 남북 관계 개선에 장애물이 된다' 의견



[그림] 바이든 정부의 대북제재 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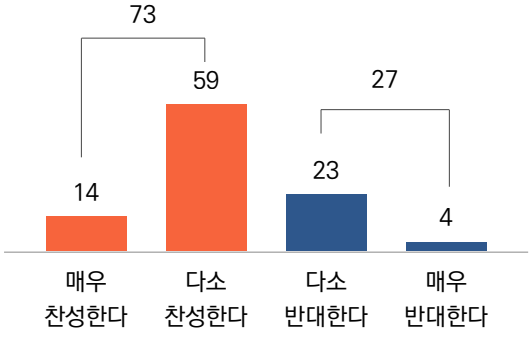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21', 2021.7.16.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면면접조사, 2021.4.26.~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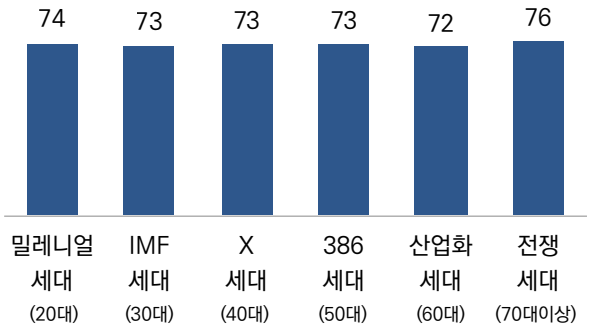
● '종전 선언' 찬성 73%

- '한국정부는 미국정부가 종전 선언을 통해 휴전 상태로 남아 있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데 73%가 동의해서 종전 선언에 대해 상당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 종전 선언 찬성 입장은 세대별로도 차이가 없었다.

[그림] 종전 선언에 대한 찬반



[그림] 종전 선언에 대한 찬성 의견 (세대별, 4점 척도/매우+다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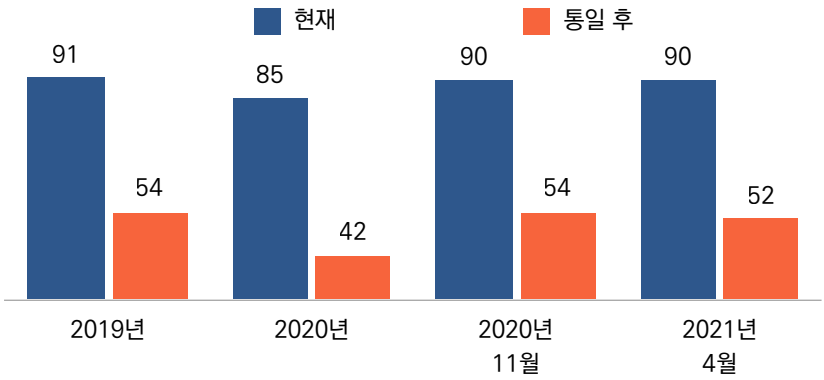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21', 2021.7.16.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면면접조사, 2021.4.26.~5.18)
**Note : 문제인 대통령이 2021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기 이전 조사 결과인 것을 유의해야 한다.

7

주한미군 주둔, 통일 후 필요성 급감! (현재 90% → 통일 후 52%)

- 현재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0%로 국민 대부분은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통일 후 주한미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52%만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현재 대비 많이 줄었다.
- 이는 우리 국민들이 주한미군을 주로 대북 억지력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4점 척도/매우+약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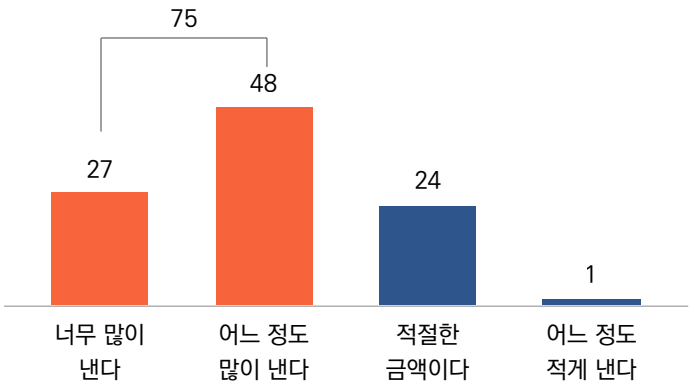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21', 2021.7.16.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면면접조사, 2021.4.26.~5.18)

●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미국에 '많이 낸다' 75%

- '최근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이 증액하기로 한 분담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75%가 '많이 낸다'고 응답했다.
-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 어쩔 수 없지만 부당하다는 국민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의견 (%)



*자료 출처 :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21', 2021.7.16.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면면접조사, 2021.4.26.~5.18)

시사점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나라는 특이한 경우로 꼽힌다. 선교사가 선교국에 들어가서 최초의 교회를 세우면서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최초의 교회를 조선인이 스스로 세운 경우이다.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 최초의 교회는 1884년 서상륜과 서경조가 황해도에 설립한 소래교회이다. 평안도 의주 출신의 서상륜은 인삼 장사로 만주를 오고 갔는데, 영국 개신교 선교사 존 로스 목사를 만나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성경번역을 도왔다. 그가 동생인 서경조를 인도하여 황해도 장연구 대구면 송천리 소래마을의 한 초가집에서 1883년 5월 16일 한국교회사 처음으로 한국인이 스스로 개신교 교회를 세운 것이다.

이처럼 신앙에 남다른 열심이 있는 한국인은 선교에서도 열심이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한국선교연구원(KRIM)은 한국 교회가 2020년 12월 현재 168개국에 22,259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발표했다. 외국 국적의 선교사도 1,435명을 파송했다. 선교사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 선교사가 미국에 이어 2위라는 발표도 있고, 6위라는 발표도 있다. 순위야 어떻든 우리나라 선교의 열심은 유별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교회는 북한을 통일이 되면 전도하고 구원해야 하는 선교지로 바라본다. 그래서 통일을 대비해 북한 선교를 준비한다. 사실 북한은 선교지로서 더 이상 좋은 곳이 없을 정도의 조건을 갖추었다. 예수님을 모르는 2,500만 명이 있어서 전도 대상이 무궁무진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매우 가까워서 오고 가기도 편하다. 게다가 같은 언어를 쓰고 음식도 같으며, 심성도 비슷해서 외국처럼 적응할 시간이 크게 필요치 않다. 지구상에 이보다 더 좋은 선교지가 없다. 그래서 북한 선교는 한국 교회에 남은 큰 기회로 여기는 것이다.

전도의 열심이 남다른 한국 교회는 휴전선이 열리고 남북 왕래가 실현되면 육상 경기에서 종이 울리면 앞다퉈 튀어 나가는 선수들처럼 북한으로 몰려갈 것이다. 거기에 자기 교회 이름을 딴 '평양oo교회', '해주xx교회', '함흥***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남한에서 새 아파트 단지 입주가 시작되면 인근 교회가 테이블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걸어서 교회를 홍보하는 것처럼 북한 곳곳 길거리에서 열심을 다해 전도지와 일회용 티슈를 나눠주며 예수그리스도를 외치고, 집집마다 방문하여 문을 두드리며 '예수믿고 복받으세요'할 것이다. 어떤 교회는 복지센터 혹은 선교센터를 세워서 보다 선진화된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파고 들며 전도를 할 것이다.

18~19세기에 서구 세계의 수 많은 젊은이들이 거룩한 사명감을 갖고 세계의 식민지와 미개발 국가로 들어가 전도를 하며 교회를 세웠다. 그런데 이 시기의 선교 역사가 긍정적인 결과도 낳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많아서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키운 역사도 부정할 수 없다. 선교사들은 제국주의와 결합하여 제국주의에 정당성을 제공하는 등 제국주의 침략의 선봉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인종적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인종 차별을 자행하거나 현지 문화를 파괴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정적 역사가 앞으로 북한에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선교를 하신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므로 선교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여러 종교 가운데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로 개신교를 꼽는다. 그런데 개신교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해 절반은 비호감이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사회봉사활동이 전도의 수단으로 하는 형식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사랑이 결여된 봉사, 선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을 수 없고, 오히려 반감만 키울 수 있다.

남북 자유 왕래와 선교의 자유가 허락되면 북한 선교가 필요하다. 아니 당연히 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 선교에 앞서 우리는 여기에서 왜 북한 선교를 해야 하는지 스스로 질문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전도를 하는 동기는 무엇이며, 목적은 무엇인지 잘 헤아려 봐야 한다. 최초의 선교사인 예수님이 성육신 목적이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북한 선교와 준비가 되기 바란다.